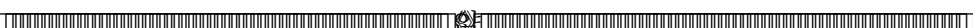


종교교육학연구 제19권. pp.223 ~ 246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12

방유룡 신부의 영성과 점성(點性)정신

崔 榮 喜
(가톨릭대학교)



방유룡 신부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본(本)을 따라야 하며, 우리의 궁극 목적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합일(合一)에 있다는 것을 그의 수도(修道) 삶에서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합일에 이르는 길은 점성에서 출발하는데, 이 점성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침묵과 대월의 여정을 거쳐 면형무아, 즉 하느님께 이르는 길을 설명한다.

점성이라는 용어에 있어서 점은 모든 도형의 출발하는 요소이고 원소이며 또한 모든 도형인 천지만물이 점에서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런 점의 특성을 영성적으로 고찰하여 입문적인 영적 여정에 적용했다는 데에 그 중요성을 둔다. 더욱이 방신부는 한국적 영성(가톨릭의 입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공헌을 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톨릭 영성의 의미를 밝히고 영혼과 점성생활에 대해 고찰하게 될 것이다.

핵심주제어 : 영성, 완덕, 영혼, 점성정신, 한국적 영성의 기틀



I. 서론

종교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와 내용은 다양하고 방대하다. 또한 영원한 신(神)을 인식하고,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과정을 교육하는 것은 실로 심오하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신을 체험하는 영적인 상황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절대자인 하느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혼과 상통하는 통교(通交)의 영성적인 입문을 고찰하고자 한다.

영성생활을 하는 인간이란 아주 놀랄 만큼 복잡하고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는데 그 많은 조직과 수직조에 달하는 세포들은 서로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간 두뇌, 그 중에서도 대뇌피질의 복잡성은 인간에게 사고의 능력을 부여해 주고, 더욱이 전인(全人)인 영혼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땅위의 다른 피조물보다 측량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진다는 진리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진리의 추구는 계시를 통하는 것, 권위에 의존하는 것, 직관을 통하는 것, 합리주의에 의한 것, 과학적인 방법 등에 의존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전통적인 종교는 진리 탐구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몹시 신뢰해 왔다. 이는 신(神), 하느님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관념이나 통찰도 초월하는 것이다. 여기에 관한 언급은 주로 가톨릭의 기본 정신을 표명할 것이고, 이는 실제로 방유통 신부의 영적 체험에서 발상한 점성정신의 영성에서 알아 볼 것이다. 그는 일생동안 묵상과 관상을 통해 영적인 것을 깨닫고 체험한 것을 우리들에게 전수한 수도사제(修道司祭)이다. 그의 업적에서 풍부한 한국적 영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II. 영성의 의미

‘영성(靈性)’이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닌 하느님과 친분관계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나날의 삶은 일관된 것이며 동시에 신적권능(神性)과 인간의 삶을 훌륭하게 하나로 융합시키는 것이다.¹⁾ 그러므로 영성생활은 하느님의 계시와 구원 사업의 신비적 차원을 받아들이면서 실현하는 그리스도교인의 존재와 삶을 의미한다. 영성은 인간의 부분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통하여 생활화 되어야 하기에 충분히 성장하고 완숙될 때까지 물을 주듯이 돌보는 교육이 요청된다.

영성이란 개념은 ‘영’(spiritus)이나 ‘정신’(pneuma)이라는 말로서 신령한 능력, 즉 초자연적 능력을 지칭하는 성서적 용어와 일치한다고 보며, 엄격한 의미로 볼 때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 분을 통하여 삼위일체께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²⁾ 영성생활은 하느님의 생명이 영혼과 상통하는 통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언급은 모두 하느님에 관한 학문, 즉 신학으로 연결된다.

* 본 논문은 200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 연구비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1) Finbarr B. Connolly, *God and Man in Modern Spirituality*, 유철, 《현대 영성에 나타난 하느님과 인간》, 서울: 가톨릭 출판사, 1995, 7쪽.

2) Jordan Aumann, *Spiritual Theology*, 이홍근, 《영성신학》, 왜관: 분도 출판사, 1987, 18쪽.

1. 영성의 어원적 유래

‘영성’이란 용어는 5세기경 위(僞) 예레미아 서간(Pseudo-Jeronymus, Epist. 7: PL 30: 114D-115A)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바오로 사도의 제시으로써 ‘그대는 영성에 진보하도록 행위 하시오’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과 연관되는 삶’의 방식과 일치한다. 영성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스피리투알리티스’(spiritualitas)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사도 바오로가 사용한 희랍어 ‘프네우마’를 ‘스피리투스’(spiritus)로 희랍어 ‘프네우마티코스’를 ‘스피리투알리스’(spiritualis)로 번역한 것이며, 여기서 ‘스피리투알리티스’(spiritualitas)가 파생되었다. 바오로 신학에서 ‘영’, 즉 ‘프네우마’는 ‘육’(caro)과 반대되는 개념이며, ‘영적인 사람’ 또는 ‘영적인 것’을 뜻하는 ‘프네우마티코스’는 ‘육적인 사람’ 또는 ‘육적인 것’(carnalis)과 대립된다.(갈라 3,3; 5,13, 16-25; 1고린 3,1-3; 로마 7,4-8, 14) 바오로에게 있어서 반대 개념은 비육체성과 육체성 혹은 비물질과 물질이 아니라 삶의 두 방식에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육체와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영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 성령과 반대된다면 자신의 정신과 영의 의지가 육적일 수 있는 것이다.³⁾

그리스도교적 영성은 그리스도교의 계시 진리인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기도와 행동 등에서 표현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는 계시에 대한 주관적인 표현이고 적응으로서 하느님 안에서 인간의 하느님과의 만남이면서 하느님과의 삶이다. 우선 그리스도교 영성은 그 대상과 기원과 목적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⁴⁾ 이는 곧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느님의 뜻을 삶의 목표로 하고 사는 것”⁵⁾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신학은 신적인 계시 진리와 개개인의 종교체험에서 시작하여, 초자연적 생활의 본질을 밝히고, 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침을 규정하며, 영성생활의 시초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영혼들의 진보과정을 설명⁶⁾해야 한다. 따라서 영성 신학은 신적 생명의 본질과, 이 생명이 영혼과 상통하는 일반 법칙들을 다루게 된다. 영성 생활은 신앙의 차원으로서 여러 학문에서 제시하는 영성들이 계시 진리의 영역을 취급하는 한, 그것이 신

3) 전달수, 〈영성〉, 한국교회사 연구소, 《한국 가톨릭 대사전》 9권, 대구: 분도출판사, 2002, 6257쪽.

4) 최석우, 〈한국 교회 영성의 어제〉, 한국 사목 연구소, 《전례 영성의 토착화》, 사목연구총서 5권, 1992,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92, 139쪽.

5) 정제천,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과 무아 방신부님의 영성에 관한 비교〉,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면형무아(麵形無我)》,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0, 86쪽.

6) Jordan Aumann, 앞의 책, 25쪽.

앙의 진리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모순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신학의 역할이다. 이런 역할을 통해서 영혼은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목표에 부합하게 된다.

2. 영혼

영혼이라는 낱말은 많은 혼란과 혼동을 낳았지만, 성서에 의하면 영혼이란 몸과 더불어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을 말한다. 보다 적절히 말하면 영혼은 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같이 몸을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는 온전한 인간을 말한다. 인간의 영혼은 ‘하느님의 영에 그 영적 기원’을 가지며, 이 ‘영성’은 구체적인 세계에 뿌리를 깊게 박고 있다.

성서의 용어 중에 영혼을 뜻하는 말들(히브리어 *nephes*, 그리스어 *psychè*, 라틴어 *anima*)은 ‘숨’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숨은 ‘살아 있다’는 표시이며,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은 떠나고 숨이 끊어진다.⁷⁾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네페쉬)이 되어 숨을 쉬었다.”(창세 2,7)고 되어 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인간존재=영혼’이 생겨 난 것이다.

“구약 인간론의 중심 단어인 ‘네페쉬’를....성서는 대개 ‘영혼’이라고 번역하였다.”⁸⁾ 이 단어는 우선 신체 기관의 일부로서 ‘목구멍’, ‘식도’, ‘아가리’를 의미한다. 고대 셈족들은 목구멍으로 먹고 마시며 호흡도 하므로 목구멍을 생명의 근본적 요소가 머무는 곳으로 보았다. 인간이 음식과 호흡을 불가피하게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서 ‘네페쉬’는 바로 생명자체로 파악하는 것이다. 구약 성서에서 영혼을 뜻하는 네페쉬는 사랑과 증오의 주체이고 희열과 비애의 주체로서 인간의 정신적 감정과 정서 상태의 본거지의 의미를 지닌다.⁹⁾ 대체로 자기 생명 보존과 생명 구출의 방책을 갈망하는 곤궁한 인간의 모습, 위험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 때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은 ‘갈망하다, 욕망한다, 추구한다, 사모한다’ 등의 생명에 관련된 것들이다.¹⁰⁾ 결국 네페쉬는 의식의 중심, 생명력의 중심으로서 생생하게 살아 있는 구체적 인간을 가리킨다. 즉 살아 있는 인간 존재를 의미하며, 여기서 구체적 인간이 ‘영혼’으로서의

7) X. Lèon-Dufour, *Vocabulaire de Théologie Biblique*, 〈영혼〉, 광주 가톨릭 대학교, 《성서 신학 사전》, 왜관: 분도 출판사, 1974, 408쪽.

8) Hans Walter Wolff,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문희석, 《구약성서의 인간학》, 왜관: 분도 출판사, 1976, 28쪽.

9) 심상태, 《인간-신학적 인간학 입문》, 서울: 서광사, 1989, 63-64쪽.

10) Hans Walter Wolff, 앞의 책, 37쪽.

‘네페쉬’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인격 존재’로서의 ‘네페쉬’자체로 파악되어 있다.¹¹⁾ 따라서 네페쉬는 인간 모습 전체로서, 특히 인간의 호흡을 총망라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인간은 네페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곧 네페쉬이며, 그는 네페쉬로 살아있다¹²⁾는 사실에서 인간의 생명력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인간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활력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된 ‘정신적 실재’를 표시하는 단어 ‘루아’(ruach)이다. 이 말은 ‘바람’, ‘입김’, ‘영’(spirit)을 의미한다. 이 루아가 진흙으로 이루어진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네페쉬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루아는 인간에게서의 하느님의 신비로운 임재(臨在) 및 역사(役事)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초월적이고 초 의식적인 인격 중심으로서 본질적으로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느님의 작용을 수용할 수 있는 요체이다.¹³⁾

그리스도교 메시지는 육체-영혼이라는 이원론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에 항상 반대해 왔고, 그 대신 인간 존재의 통일성을 강조해 왔다. 성서는 인간이 육체, 영혼, 정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육체, 영혼, 정신, 마음이라고 말한다.¹⁴⁾ 종합해 보면 영혼이라는 낱말은 ‘살아 있는 것’의 의미에서 ‘생명의 원리’이고, ‘영’(靈)과 동일하며 그 영에서 유출된 것이어서 그것은 인간에게 독자적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인간 영혼이란 그 자체로 ‘자립하는’(subsistens) 어떤 것인데, 이는 지성적 원리 때문이며, 이 지성적 인식을 통해서 모든 물체들의 본성을 안다는 것이다. 영혼은 생명체의 원리이므로 인간을 이루는 모든 것은 영혼에게 언급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영혼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간은 형상(形相)인 영혼과 질료(質料)인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은 영적 형상(forma spiritualis)이며 불멸적(incorruptibilis)이라는 것이다.¹⁵⁾ 즉 인간은 형상(形相)인 영혼과 질료(質料)인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일체성이다. 인간의 육체는 ‘하느님 모습’의 존엄성에 참여한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인간의 인격은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적이다.

영혼은 우리가 생명의 제반 활동을 작용시키는 제일(원리)이다. 영혼을 제일 원리로 삼아 우리의 인식을 행한다. 인식을 행하는 이 원리는 지성이라고도 하고 이성(理性) 혼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신체의 형상이 된다.¹⁶⁾ 이 지성적 인식을 통해서 모든

11) 심상태, 앞의 책, 64쪽.

12) Hans Walter Wolff, 앞의 책, 29쪽.

13) 심상태, 앞의 책, 64, 67쪽.

14) K. H. Schelkle, *Teologia del Nuovo Testamento*, Herder, Barcelona, 1975, pp.184-194.

15) Dal Sasso-Coggi, *Compendio della Somma Teologia*, 이재룡, 이동익, 조규만, 《신학대전 요약》,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3, 94-95쪽.

물체의 본성을 안다. 영혼 속에 사물들의 절대적 형상적 근거들이 있다면,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영혼은 영적 형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성은 하느님과의 관계이므로 영혼과 직결된다.

구약 성서에서는 육체와 몸이 같은 단어(히브리어, basar)로 표시되는데 반하여 회랍어로 된 신약 성서에서는 두 개의 낱말, 즉 사르크스(sarx, 육체)와 소마(sôma, 몸)로 구별되어 있다.¹⁷⁾

신약 성서에서 ‘몸’에 관하여 말할 때마다 몸은 전인(全人)을 뜻한다. 가끔 몸이란 단어 대신에 지체(肢體, melê)란 단어를 쓰기도 한다.(로마 6,13)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 자신이 몸이다. 그러므로 몸은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행동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고, 또한 하느님께 순종도 할 수 있고 불순종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¹⁸⁾ 몸이란 단순히 살과 뼈의 합성체가 아니라 보다 고상한 품위를 지니고 있다. 몸은 그 지체들을 하나로 모을 뿐 아니라(1고린 12,14-27) 그리스도께 바쳐지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주요한 입지에 놓인 인간을 표현한다. 사도 바울로는 몸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특히 죄스런 생활은 몸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것으로 본다. 몸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간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언제나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¹⁹⁾ 몸은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고(1고린 6,14), 그리스도의 지체(1고린 6,15)이며, 성령의 성전(1고린 6,19)이다. 그런 까닭에 자기의 몸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1고린 6,20)는 특징을 나타낸다.

성서에서 ‘육체’라는 낱말 ‘basar’은 피조물이라는 인간 조건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바울로는 이 뜻이 유일한 의미가 아니다. 육체(sarx)는 확실히 인간 본성의 약함을 뜻하지는 않지만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 즉 피조물의 나약함과 병에 대한 허약성이 내포되어 있다.

육체(sarx)에 따라 생활할 가능성은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흔적 때문이고 전에 죄를 지었던 육의 매개로써 되는 것이다. 우리는 육의 유혹에 빠짐으로써 죄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육체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죄로 이끄는 그 사람의 의지를 비난해야 한다.²⁰⁾ 그리스도인도 육체를 따라서 생활할 수 있지만 사람이 되기

16) Thomae Aquinatis, *Summa Theologiae*, I, q.76, a.1, c.

17) X. Léon-Dufur, 앞의 글, 〈몸〉, 168쪽.

18) W. Gutbrod, *Die Paulinische Anthropologie*, Stuttgart & Berlin, 1934, pp.31-43; R. Bultman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 Tübingen, 1953, pp.189-199; J.A.T. Robinson, *The Body: A study in Pauline Theology*, London, 1952, pp.14-16, 26-33.

19) X. Léon-Dufur, 앞의 글, 〈몸〉, 168쪽.

20) X. Léon-Dufur, 앞의 책, 〈육체〉, 462-464쪽.

위해서는 생명의 영인 루아(ruach)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영성적인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III. 방유룡 신부의 생애와 한국적 영성의 기틀

1. 방유룡 신부의 생애와 사목(司牧)활동

방유룡(方有龍, 레오)신부는 1900년 3월 6일 서울시 정동(서소문안 대한문 앞)에서 태어났다. 부친 방경희(方敬熙, 베드로)는 당시 궁내부 주사(宮內剖 主事)이자 영국 공사관의 통역관(영어)으로 지냈고, 모친 손유희(孫柔姬, 아네스)여사 사이의 6남매 중 4남으로 태어났다. 방유룡 레오 신부(이하 방신부로 표기)의 조부인 방제원(方濟遠, 프란치스코)은 명성 높은 한학자로서 당시 한국천주교 교구장이었던 뮌텔(Mntel) 주교와 블랑(Blanc) 주교에게 한문을 가르쳤고 많은 후학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다. 방신부의 부친이 궁내부 주사로 재임하다가 지방 군수로 발령받았으나 지방관으로서 향교제사(鄕校祭祀)가 어렵게 되므로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방신부는 대대로 깊은 신앙생활을 실천해온 전통적인 가톨릭 집안에서 성장하였다. 방신부는 어려서부터 조부에게 한학을 배운 영향으로 동양의 사상체계를 이해했고, 그에 따른 한국적 영성의 언어를 발굴하여 그 기틀을 다졌다.

방신부가 정식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은 15세-18세 때인데, 이때 방신부는 정동관립보통학교와 미동농업학교에서 수학한 후 졸업을 했다. 그리고 18세에 용산 예수성심 신학교에 입학하여 6년간 수학했고, 이어서 대신학교(현재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6년간 수학한 후 1930년 10월 30일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30년에서 1955년까지 사제로서 사목활동을 했다. 방신부의 사목활동은 1930년 10월 강원도 춘천 본당 보좌 신부로 취임했고, 이듬해 9월에는 황해도 장연 본당의 보좌 신부로, 1933년 2월에는 황해도 지령 본당 제4대 주임 신부로서 사목을 했고, 1936년 5월에는 황해도 해주 본당 제7대 주임 신부로 부임했다. 1942년 2월에는 경기도 개성 본당 주임 신부로, 1950년 5월에는 서울 가회동 본당 제2대 주임 신부로 있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제기동 본당 신부로, 1955년 10월에는 서울 후암동 본당 제4대 주임 신부로서, 그동안 8개 본당에서 적극적인 사목 활동을 펼쳐 나갔다.

이 때는 시대적으로 암울한 일제의 식민 통치기간이라서 사회적 분위기가 억압적이었고 해방의 기쁨도 가시기 전에 민족의 비극적인 6. 25 동란으로 인하여 민족의 아픔을 철저히 경험했던 시기였다. 그런 까닭에 성직자로서 우리 겨레의 순수한 독립 의식과 한국 전통적인 정신의 구축을 염원했으며, 무엇보다 그리스도교의 진리의 빛

이 우리 민족에게 비추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살아갔다. 방신부는 시대상의 악조건이 크게 대두될수록 이 사회와 이 국가의 민족에게 복음의 진리를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제 자리로 귀의시키는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는 우리 겨레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민족정신과 삶의 평화에 대한 회구였고, 인간의 영혼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실제적인 구현을 희망하였으나 일제 시대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였다.

8. 15 해방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자유를 획득하게 되자 드디어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투신할 수 있는 ‘수도 공동체(修道 共同體)’를 창설하기에 이른다. 방신부는 본당 사목의 활동 중에서도 한국인의 의식과 정신에 잘 부합하여 복음의 씨앗이 이 땅위에 뿌려져 백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국 수도회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그 창설의 기회를 기다렸다. 그리하여 개성 본당에 재임하던 때, 아직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한국 순교자들을 주보로 모시고 1946년 4월 21일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²¹⁾를 창설시킨다. 이어서 1953년에는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수사, 신부)를 창설했고, 1957에 복자 수녀회 소속 ‘제삼회’²²⁾ 그리고 1962년에는 한국에서 보기 힘든 기혼자 여성들의 수도생활을 위해 ‘한국 순교 빨마 수녀회’를 세웠다.

방신부는 1957년 5월 6일 자신도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에서 종신서원을 하고 ‘無我 안드레아’(수도명) 수도사가 되었다. 그는 특히 수사, 수녀들의 영적 가르침에 전념하다가 1986년 1월 24일 자신이 설립한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서울 성북동에 위치하고 있음)에서 87세의 일기로 수사, 수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일생동안 묵상을 통해 깨달은 신비와 하느님을 찬미하는 시를 노래로 읊어가면서 많은 영가(靈歌)를 노트에 기입해 놓았다. 그리고 매일의 미사 때마다 강론을 빠지지 않고 계속하였으며, 그는 사제생활과 수도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도회의 영성뿐만 아니라 한국 영성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다져 갔다.

21)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2004년 현재 537명의 회원(수녀)들이 있다. 수녀회의 회원들은 국내 109 곳, 국외 17곳에서 여성교육, 본당, 병원, 사회복지 기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몬테소리 연구소, 교회사 연구소, 순교자 기념관, 영성센터 등에서 수도생활을 하면서 사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 수녀회에서 1963년에 설립한 복자여자 중. 고등학교는 명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예의바른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30,000여명의 졸업자를 배출시켰다.

22) ‘제삼회’란 교회가 인준한 단체로서 세상(세속)에 살면서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수녀회의 지도를 받아 가며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적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자 하는 여성들이 가입하는 단체이다.

2. 방유룡 신부와 한국적 영성의 기틀

방신부의 생애동안에 남긴 업적은 우리 민족사에 길이길이 빛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평화신문에서 선정(1999년 12월 19일)한 기사에 의하면 “20세기를 빛낸 한국의 가톨릭 인물 10인” 중에 방신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방신부는 수도회 창설 초기부터 수많은 수도 용어를 창안하는데 동양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적 가르침을 펼쳤다. 이는 동양인의 심성 안에 ‘미리 주어진’ 하느님의 모상성을 찾고, 그 문화 안에 그리스도교 영성을 뿌리내리게 하는 신앙의 토착화 내지는 영성의 토착화라는 과업을 가능하도록 이끌어 갔다. 따라서 방신부는 한국의 교회사와 영성사 안에서 그리스도교 영성을 토착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

김규영 교수(전 서강 대학교 철학과)에 의하면 제기동 본당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을 때 방신부가 집전하는 미사 전례에 참석하였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미사 속으로 빨려들어 갔다는 것이다. 즉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사 진행 중에 동작 하나 하나가 그 템포와 더불어 말없는 가르침이었다. 제헌이 시작되면서 신부님의 모습은 가경(佳境)에 들어가 헌작할 때의 그 표정은 입신(入神)하는 듯, 말하자면 거룩함에 동참하는 도취의 고요함 이었다. 어쩌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²³⁾

방신부는 경건한 신앙과 수도생활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 충실했고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심중천국(心中天國)을 강조하며 끝까지 성소(聖召)에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박희진 시인은 방신부를 생전에 가끔 만나서 모임을 가졌고, 방신부에 대한 기억을 다음과 같이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살아생전에 당신이 만나 본 사람 중에서 성자라고 할만한 사람이 있는가?
누가 저 한테 질문을 던진다면 서슴없이 대답할 것이다. 방안드레아 신부님이 성자(聖者)이십니다.....전혀 일이 안 보이고 멍한 상태인데 갑자기 길이나는 겁니다. ‘아! 이 분이 진짜 성자시구나!’ 정말 이 분을 찬미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우러나왔던 것이다.²⁴⁾

23) 김규영, 〈천주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하겠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편, 《순교의 맥》, 서울: 도서출판 순교의 맥, 1996, 98쪽.

24) 박희진, 〈미소하는 침묵〉, 위의 책, 103-104쪽.

박희진 시인은 방신부에게 ‘동정 지키는 일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방신부는 ‘아무리 결혼 생활의 진미가 사람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들더라도 정말 하느님의 맛을 본 초자연적인 경지에서 보면 그건 말할게 못되며 무미건조하다는 것이다.’ 방신부는 하느님을 체험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희진 시인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시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어느 날의 방안드레아 신부
 꿈속에서 장가를 들었기에
 너무 억울하여 울었다는 신부님
 그런 신부님께 우문(愚問)을 던졌겠다.
 동정(童貞)지키는 일 쉽지 않겠지요?
 남녀가 서로 마음이 통해
 더없이 사랑하며 함께 사는 일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기막힌 음식에 비유할 만 합니다.
 하지만 고차원의 영성적 사랑
 하느님 사랑을 맛본 사람에겐
 무미건조한 음식에 불과 하죠
 하시는 신부님 표정을 살피니
 백발은 성성해도 순진하고 편안한 동안 일세
 늘 새록새록 씹는 신락에 취하심일까?²⁵⁾

진교훈 교수(전서울대학교 철학과)는 방신부를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되면 “저 생각의 배경은 무엇일까? 어디서 저런 것을 따올까? 그런 생각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곧잘 했었다.”²⁶⁾고 한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도입될 당시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무비판적으로 교리(敎理)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검토와 연구를 했다는 것은 교회사²⁷⁾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방신부도 전통적인 가톨릭의 교리와 사상을 왜곡되지 않게 전수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말로 풀어서 옮겨 놓았으니 한국화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방신부의 수도(修道)하는 삶 속에서 특히 영적인 면에 체험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성의 기틀을 구축했다. 즉 한국인의 고유한 품성 안에서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정신 및 영성을 한국인인 방신부의 언어로 표현했다는 점이 두

25) 위의 책, 107-108쪽.

26) 진교훈, 〈무아 방신부의 정신세계〉, 위의 책, 109쪽.

27) 참조: 류홍열, 《한국 천주 교회사 上卷, 下卷》,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1(7판 5쇄). 김옥희, 《한국 천주교 사상사》, 서울: 도서출판 순교의 맥.

각을 나타낸다. 더욱이 한국 순교자들을 염두에 두고 순교자 영성에도 치중했다.

예를 들어 방신부의 영성²⁸⁾에서 함축적인 언어 표현으로써 ‘점성정신(點性精神)’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살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가벼이 보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정확히 하는 것이다. 방신부가 사용한 영성적인 언어는 한문을 알아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가톨릭의 전통적인 수덕 신비 신학에서는 완덕에 이르는 단계를 정화, 조명, 일치 의 3단계로 분류해 왔으나 초보, 진보, 완성의 단계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아주 요약 하여 설명하자면 제1기는 정화기(淨化期)로서 대죄는 물론 소죄도 피하며 결점까지도 제거하는 정화의 길이다. 제2기는 조명기(照明期)로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완덕을 향해 정진하는 빛의 길이다. 제3기는 일치기(一致期)로서 하느님과의 내적인 일치에 있으며 가장 높은 단계이다.²⁹⁾ 여기에서 주의 할 것은 영성생활 발전의 등급을 행동에 대한 윤리적 범주들의 상이한 객관적 가치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위적인 경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단계들이 영성생활의 발전 과정에서 실제로 뚜렷하게 분별된다면 그 단계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된다.³⁰⁾ 방신부의 모든 가르침은 교의적인 면 그리고 영성적인 면에서도 가톨릭 신학과 전통에 확고하게 뿌리를 박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구적인 개념의 무조건적인 답습이 아니고 동양인의 심성과 동양 문화의 터전 위에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임으로써 동양의 흙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자라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신부의 영가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즉,

침묵은 정화기(淨化期)에서 어둠을 헤치고
대월은 조명기(照明期)에서 빛을 보고
빛으로 입을 뱉고 입에 애착하면
무아는 일치기(一致期)에서 입과 일치하고
면형(麵形)과 같이 입을 모시는도다.³¹⁾

방신부는 정화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침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침묵은

8) 본 논문에서는 방신부가 생전에 사용하던 영성적인 언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책을 참고했다. 이숙자, 《무아 방유룡 신부님의 영적 가르침》, 서울: 한국순교복자수녀회, 1996.

29) 전달수, 〈완덕〉, 한국교회사 연구소, 《한국 가톨릭 대사전》 9권, 대구: 분도출판사, 2002, 6510-6511쪽.

30) K. Rahner, 《영성신학 논총》, 정대식 옮김, 서울: 가톨릭 출판사, 1983, 120쪽.

31) 방유룡, 《사랑이 사랑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형제애, 2003, 82쪽. 본 책은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에서 방신부가 생전에 기록해 놓은 영가들을 한데 묶어 출판한 것이다.

동서양의 수도(修道)전통에서 항상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침묵은 잠심 혹은 정신의 수렴이라는 맥락에 속하지만 방신부는 침묵을 사육에서 나오는 모든 동작, 표현, 생각, 의지를 없애는 수련을 망라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침묵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소리를 듣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포함시킨다. 방신부의 영성에 의하면 침묵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 즉 “침묵은 임께로 가는 길이니 면형(麵形)가는 직선로로다.”³²⁾라고 설명한다.

조명기를 ‘대월’로 보는 것은 침묵에 이른 영혼은 모든 것을 뛰어 넘어 하느님을 대하는 대월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기도, 관상만을 생활화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주어지는 人, 事, 物, 現像 안에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뛰어 넘어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사는 대월 생활을 포함한다.³³⁾

일치기를 ‘무아’로 보고 ‘면형’이 된다는 것은 방신부가 성체의 그리스도를 본 받기 위해 전 일생을 걸고 투신을 결행했던 내용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했고 그리스도의 면형무아를 깨달았을 때 그 분처럼 살고 싶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신부는 ‘면형무아’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된다. 그는 면형무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이름까지 ‘유룡(有龍)’이어서 ‘무아(無我)’로 바꿀 정도로 그리스도의 생애에 자신의 생애를 전적으로 봉헌한다. 이와 같이 방신부는 한국인의 수도사제(修道司祭)로서 서양의 영성이나 사상을 그대로 인용하기 보다는 순수한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감정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아들었고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를 보이도록 표현하는 특수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톨릭의 전통사상인 성서와 토미즘(Thomism)³⁴⁾의 사상이 방신부가 생전에 남긴 영가, 묵상, 강론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³⁵⁾ 이러한 내용은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한국화 하는데 매우 성공한

32) 위의 책, 91쪽.

33) 정제천,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과 무아 방신부님의 영성에 관한 비교〉,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면형무아(麵形無我)》,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0, 88-89쪽.

34) 토미즘이란 성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 이태리)에 의해 세워진 철학 신학 체계이며, 철학에 있어서는 ‘이성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신학에 있어서는 ‘계시의 자율성’을 선포했다. 그리고 불멸하는 정신영혼은 유일한 본질 현상이며, 인간은 증명할 수 있는 지식으로써 피조물로부터 시작하여 신에게까지 도달하게 되며, 신은 제1의 原動者, 최초의 원인이며,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有(Esse)로써 모든 질서와 목적성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또한 ‘나는 곧 나다’(출애 3,14)라는 신의 이름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했다. 참조: 김형락 편, 〈토미즘〉, 《천주교 용어사전》, 서울: 도서출판 작은 예수, 1999, 600-601쪽.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방대한 작품은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의 심원한 사상과 하느님 체험의 지복직관은 탁월하다.

35) 김옥희 편, 《영혼의 빛》, 서울: 태화 출판사, 1980, 690쪽으로 되어있으며 주로 방신부의 ‘강론’과 ‘영가’등이 수록되어 있는 어록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유룡, 《사랑이 사랑을 위

선구자”³⁶⁾라고 진교훈 교수는 증언하고 있다.

방신부는 한국적 영성을 잉태하는 신비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기도문을 만들었고, 힘찬 강론을 했고, 영가로써 노래 부르며, 우리에게 진지하게 가르쳤다. 다음의 영가는 방신부 영성의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

내가 주의 집으로 간다하기에 나 얼마나 기뻐는지!
나, 일생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의 집으로 감이로다.

.....
성부(聖父)의 궁전에는 거처할 곳이 많이 있으니
내가 가서 자리를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
성신(聖神)의 황홀한 광채는 칠색이 영롱하고
밤이 없는 빛이요 영원한 빛의 나라로다.
성(城)안이 평화롭고, 성총과 기쁨이로다.³⁷⁾

3. 가톨릭에서 방신부 영성의 위치

방신부는 아직 성인(聖人) 품위에 오르지 않았다. 가톨릭에서 성인이라는 의미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느님께 대한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한 사람을 말한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복시성(諡福諡聖)이 되어야 한다. 시복시성은 성덕이 높은 분들을 사망 후 성인이나 복자 품위에 올리는 예식을 말한다. 따라서 성덕에 대한 여론이 많고, 그 분을 통해 기적이거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주교는 그 분의 언행, 저서, 기적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교황청(신앙교리성성)에 보고한다. 교황청에서는 엄격한 조사를 하고 자료를 검토한 후 조사를 추진할만하다고 인정되면 교황에게 보고한다. 이에 합당하다고 하면 성덕을 인정하는 교서를 발표한다. 그 분의 성덕이 확정되고 기적이 두 가지 이상 있으면 의사, 병리학자 등이 기적에 대하여 확실히 검토하며, 진실로 기적이라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관계 전문가들의 조사와 재판을 계속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때 기적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분을 복자로 선언한다. 이것을 시복이라고 한다. 다음에 그 분을 통하여 진실한 기적이 두 가지 이상 일

하여》, 서울: 도서출판 형제애, 2003, 528쪽으로 되어 있으며 방신부의 친필 원고들인 ‘영가’를 출판했다.

36) 진교훈, 앞의 책, 110쪽

37) 김옥희 편, 앞의 책, 136쪽. 필자가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에 입회하여 방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할 때 그는 강론 중이라도 영적인 내용에 감격하면 하느님을 찬미하는 시를 영가로 읊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어날 때 같은 조사과정을 거쳐 성인으로 전 세계에 교황이 선언하고 의식을 거행한다. 이를 시성(諡聖)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가톨릭에서 성인(聖人)이 되면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경하게 된다.³⁸⁾

방신부의 사상과 영성에 관해 강우일 주교는 “우리 순교선열들의 뜨거운 신앙을 당신 나름대로 면형무아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³⁹⁾ 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온 생애와 일치하는 정신이라고 했다. 이는 방신부가 가톨릭 전통에 충실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최재선 주교는 방신부가 창설한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가 순교자들의 유적과 유품들을 모으고, 보관하며, 한국 순교자들의 유해를 모시고, 순교자 기념관을 세우고 순교정신을 고취시켰다는 것은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업적”⁴⁰⁾이라고 했다. 오늘날 한국 가톨릭의 발전은 순교자들의 공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박정일 주교는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의 영성의 요체가 성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며, 그것이 창설자이신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주창하시는 면형무아의 영성”⁴¹⁾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주교들이 입증했듯이 방신부의 영성은 가톨릭에서 중요한 위치와 범위를 지니고 있다.

IV. 방유룡 신부의 영성에서 점성정신(點性精神)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신부는 영성적인 완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화(聖化)의 길을 찾았다. 방신부는 그 성화의 길로 나가는데 있어서 영성의 진술 양식과 그 상용된 용어들을 매우 한국적이면서 동시에 성서적이고 교의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방신부가 사용한 영성의 어휘 표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영성의 이해라는 차원에서 실제로 수덕적(修德的)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활에서 체험되어진 것들이 내재되어 있을 때 영성의 언어들에 대한 의미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점성은 입문적인 영성을 나타낸다.

방신부의 영성에서 나타나는 ‘점성정신’은 방신부 스스로가 만들어낸 전혀 새로운 단어이다. 그의 다양한 영성 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한 언어는 ‘점성정신’, ‘침묵’, ‘대월’, ‘면형무아’, ‘심중천국’, ‘완덕오계’ 등이 있다. 한 영성가의 내면세계 및 영적여정에서 발견되는 것은 언사(言辭)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초자

38) 최형락 편, 〈시성 및 시복〉, 《천주교 용어사전》, 서울: 도서출판 작은 예수, 1999, 385-386쪽.

39) 강우일, 〈면형무아는 그리스도의 온 생애〉, 위의 책, 19쪽.

40) 최재선,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 위의 책, 24쪽.

41) 방정일, 〈무아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위의 책, 26쪽.

연적인 일치에서 우러난 영적인 내용 중에서 우선 ‘점성정신’은 “완덕은 점성에서 출발하여 침묵을 지나가고 대월(對越)을 넘어가서 면형(麵形)에 도달하는 도다.”⁴²⁾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느님을 찾아가는 단계는 다양하지만 방신부에 의하면 ‘점성’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영성적 삶의 궁극적 삶에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전인적 노력이 어느 시작점에서 어떻게 혹은 어떤 모습으로 출발해야 할 것인지 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시작을 하려면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 그 순간이 있어야 드디어 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인들의 업적도 자동적으로 어느 때에 성취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한 출발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방신부는 영성생활의 기초를 놓는 출발의 시작점을 이룩해 내는 정신을 ‘점성정신’(點性精神)이라고 했다.⁴³⁾ ‘점성’이란 말은 방신부가 만들어 낸 신조어(新造語)이며, 이 점성이라는 단어는 ‘점(點)’에서 나온 말이다. 특히 영성생활을 하는 수도생활에 바탕이 되는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요소로써 발견하고 ‘점적(點的)’ 또는 ‘점의 성품을 지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점성이라는 상징어를 만들었다. 이런 상징어는 글자풀이 그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점은 기하학의 기본 개념의 하나로서 길이, 넓이, 높이, 두께는 없지만 그 위치는 분명히 존재해 이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길이, 넓이, 높이, 부피가 나오기 때문에 점은 모든 도형의 시작이며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점은 모든 자연계의 기초가 되며, 선(線)은 점의 연속에서 온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점’에서 우리의 영적 삶에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방신부는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점처럼 영성생활에도 아주 필요한 기초적 요소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비록 점이 아주 작지만 그것을 무시하고는 일체의 모형이 불가능하듯이 영성생활에서 요구되는 완덕을 닦는데도 점처럼 작은 순간이나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지하고 있다. 어떤 모형이 크고, 훌륭하더라도 한 점에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영성생활에서도 점처럼 작고 인간의 시야(視野)에서 잘 보이지 않더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방신부가 말하는 점성정신의 핵심은 만사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이다. 따라서 첫 시작에서부터 만사에 이르기까지 ‘정성스럽고’, ‘규모있고’, ‘빈틈없고’, ‘알뜰하고’, ‘정확하게’ 하는 정신을 말한다. 그렇게 하면 마침내 모든 순간을 영적인 사랑으로 채우고 범사를 하느님과 공존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방신부는 점성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설명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다.⁴⁴⁾

42) 방유룡, 앞의 책, 93쪽.

43) 김옥희 편, 앞의 책, 488쪽.

1. 일반적으로 본 점성정신

일반적 의미의 점성정신은 개인의 성공과 보다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왜냐하면 점처럼 사는 사람은 업적이나 능력에 대한 과시 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발전에 바탕이 되어주고 자신 것까지 양도하는 겸손의 극치를 이루는 기초를 놓는다. 여기에서 유아(唯我)를 무아(無我)로 변형시키는 과정이 요청된다.(이 과정은 본 책의 다음 호에서 설명될 것이다.)

매사에 알뜰하게, 규모있게, 빈틈없이, 정성스럽게, 정확하게 하는 점성정신의 행동 지침은 일반사회에서도 필히 요구되는 정신이다. 이는 곧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작은 일까지 충실할 때 큰일에도 충실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이론과 합치된다.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그 사회의 기초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점의 소홀함도 없이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웃 형제에게 봉사 및 사랑을 하는 점성정신이라고 방신부는 보고 있다.

수련의 목적이 변형이면, 그 출발은 점성이니
 점성에서 침묵으로 가면서 유아(唯我)를 없앨지이다.
 사랑이 좋으면 사랑으로 가서
 사랑받기 전에 먼저 사랑할 줄 알고
 내게 잘되기를 원하거든 먼저 형제에게 실시할 지이다.⁴⁵⁾

2. 신덕(信德)으로 본 점성정신

신덕으로 본 점성정신은 신앙의 눈을 가졌기에 아무리 작은 것, 미소한 일이라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본다. 이는 사회적 차원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신덕으로 본 점성정신에서 ‘신덕’이라는 뜻은 ‘향주삼덕(向主三德)’을 포함한다. 향주삼덕이란 초월자이며 절대자이신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덕이다. 이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덕이며, 이를 대신덕(對信德)이라고 하는데 곧 신덕(信德), 망덕(望德), 애덕(愛德)을 말한다.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덕 즉 믿음내지는 신앙이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고 이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느님과의 일치

44) 김옥희 편, 위의 책, 661쪽.

45) 방유룡, 앞의 책, 93쪽.

를 영원히 계속하기 때문이다.(I 고린 13,13) 믿음은 하느님과 의 기본관계를 말하고, 소망은 믿음의 마지막 결과이기 때문에 소망 없는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 된다.⁴⁶⁾

인류의 종교적 전통은 모든 인간의 신앙에서 비롯되고, 신학적으로 볼 때 신앙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믿을 진리를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안에 사고(思考)의 동의로서의 신앙을 갖게 하신다. 왜냐하면 동의는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⁴⁷⁾ 이것은 인간 실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실존의 궁극적 조건과 대면하는 것이다. 신앙은 영성생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께 희망을 두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자신을 인간의 목적으로 설정했으므로 하느님께 합일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고 목적이며, 이 목적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느님 자신이므로 하느님이 먼저 거기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이사, 64,4; 마르코 2,9) 여기에 계시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신앙으로 받아 들여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는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으나(로마 1,20) 그 범위를 초월하는 진리는 계시에 의존한다.(히브 1,1-2) 그러므로 신앙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는 자기의 심원한 양심 속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신비를 충만한 친밀감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힘’이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구원의 힘인 것이다.”⁴⁸⁾ 그런데 구원은 오직 은총으로 된다면 그 구원은 그 은총을 전적으로 짊어지고 완성해야 할 신앙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신앙 안에서 인간의 지성과 의지는 하느님의 은총과 협력한다.⁴⁹⁾ 성 토마스에 의하면 “신앙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움직여진 의지의 명령에 따라 하느님의 진리에 동의하는 지성적 행위이다.”⁵⁰⁾라고 규정한다.

방신부는 실제로 신앙으로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은 인(人), 사(事), 물(物), 현상(現狀)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며, ‘겨자씨 만한 신앙’(마태 17,20)의 만능을 그 예로 들면서 아주 작은 점 같은 신앙이 위대한 점성정신임을 상기시킨다.⁵¹⁾ 여기에서 신앙 자체의 작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점성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덕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의 종류나 크고 작음에 따라 신덕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46) 최형락 편, 〈항주삼덕〉, 《천주교 용어사전》, 서울: 도서출판 작은 예수, 1999, 636-637쪽.

47) 이재룡 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요약》, 서울: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1993, 225쪽.

48) K. Rahner, *Do You Believe in God?*, New York: Newman, 1969, p.94.

49)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 편, 《가톨릭 교회 교리서(제1편)》,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94, 63쪽.

50) 성 토마스 데 아퀴노, 신학대전, 2-2,2,9.

51) 김옥희 편, 앞의 책, 488쪽.

일을 보는 내적 태도와 그 일을 수행하는 마음가짐 즉 믿음의 정신에 따른다는 것이다. 한 말로 요약하면 하느님을 믿는 점성정신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며, 점성정신을 통해서 일상을 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수도(修道)정신으로 본 점성정신

하느님과 완전한 합일을 이루려는 사람, 특별히 수도자들은 더 깊은 차원의 점성정신이 요청된다는 것을 방신부는 ‘수도정신으로 본 점성정신’이라고 피력했다. 수도정신으로 본 점성정신은 하느님의 능력으로 만물이 생겨나고, 면형이 하느님이 되는 신비를 알아보고 하느님과 합일하기 위하여 무아가 되는 삶을 살게 하는 정신을 말한다. 수도생활을 하는 수도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 5,48)는 완덕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완덕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속세의 가치를 포기하는 삶을 뜻하며, 이 포기란 앤소니 드 멜로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원천’으로 반드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 원천은 바로 ‘인간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 계신 분이므로 오늘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했다.⁵²⁾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 예수회의 창설자인 이냐시오 성인(聖人)은 “기도 중에 자주, 그것도 상당히 긴 동안 그리스도의 인성을 심안(心眼)으로 뵈었다.....그래서 그는 신앙에 관한 이런 신비를 가르쳐 주는 성경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는 자기가 본 사실만으로도 신앙의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다짐하는 것이었다.”⁵³⁾ 이렇듯이 진정한 신앙 안에서는 이냐시오 성인과 같은 체험이 가능하며 이미 성인, 성녀들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영’(靈)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루아’(Ruah)의 번역으로 본래 바람, 입김, 영 등으로서 생명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다. 예수께서는 위격적으로 하느님의 숨결, 하느님의 영이신 그 분의 새롭고도 초월적인 존재를 니고데모에게 암시하기 위해 감지할 수 있는 바람의 비유를 적절하게 사용한다.(요한 3,5-8) 영(靈)과 성(聖)은 하느님 삼위에 공통된 속성이다. 그런데 성서와 전례와 신학 언어는 이 두 용어를 결합함으로써 ‘영’과 ‘성’의 다른 용법들이 있을 수 있는 혼동을 피하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성령의 위격을 가리킨다.⁵⁴⁾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인간에게 관여할 수 있다.

52) Anthony de Mello, *Contact with God*, 송형만, 《하느님과의 만남》, 왜관: 분도 출판사, 1998, 22쪽.

53) 한국 예수회 옴김, 《이냐시오 로욜라 자서전》 왜관: 분도 출판사, 60-61쪽.

54) 가톨릭 교회 교리서(제1편), 270쪽.

“하느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동기는 당신의 선성(善性)을 나누고 확산시키기 위함이었으며, 하느님의 거룩한 선성은 모든 피조물 안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또한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거룩한 신성 안에서 자신을 봉헌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⁵⁵⁾라는 진술에서 성령의 결실인 선성(갈라 5,22)을 지니라고 바오로 사도는 권고한다. 특히 하느님의 선성은 피조물 안에서 드러난다는 데에 주목하게 된다.

한 인간의 존재는 진, 선, 미의 영역 그리고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격의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격의 완성이란 이러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인간의 영적 조국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 제사물(諸事物)의 모든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사물의 질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 속세보다 우위에 있는 절대자를 반영하며, 또한 절대자에게로 향해 가는 인격을 내포한다.⁵⁶⁾

인격을 내포한 신앙은 영성 생활의 원리이므로 절대자인 신비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방신부는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무(無)까지 내려가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정신으로 본 점성정신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무로 내려가는 신앙에 의해 ‘무로부터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느님의 말씀은 지금도 새 창조를 계속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창조 행위가 완결된 것이 아니고 새 창조를 계속한다고 할 때 수도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봉헌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봉헌은 청빈, 정결, 순명이라는 삼대 서원을 통해 하느님께 봉헌하여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곧 자기를 봉헌하는 점성정신의 표지가 되는 것이다. 점성정신의 표지에 대해 방신부는 “자유를 완전히 봉헌하는 것이며 양심 불을 더욱 밝히면서 사욕 없는 무아의 마음을 드리는 것”⁵⁷⁾이라고 했다. “양심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참여하도록 불리운 인격적 소명을 알려준다.”⁵⁸⁾ 수도 정신으로 본 점성정신은 하느님께 자기의 전체를 사욕 없이 전적으로 드리는 것으로써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을 하느님과 일치시키며 양심대로 살 것을 약속하는데 있다. 신앙으로써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사욕 없는 무아의 마음이 형성된다.

55) F. Copleston, *A History of Philosophy II*, Westminster Maryland: The Newman Press, 1992, pp.365-366.

56) J. Maritain, *Pour une Philosophie de l'éducation*, Paris: Librairie Arthème Fayard, 1969, p.24.

57) 김옥희 편, 앞의 책, 514쪽.

58) K. H. 페쉬케, 《그리스도교 윤리학》, 김창훈, 왜관: 분도 출판사, 1991, 273쪽.

수도정신으로 본 점성정신이 사육 없는 무아의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때, 마음이란 자기 전 존재의 근거를 뜻한다. 그리하여 사육 없는 무아의 마음이란 나의 어떤 부분도 남기지 않고 하느님만으로 면밀히 점령된 나의 전 존재를 말한다. 하느님을 거슬리는 나를 쫓아 내고 하느님 좋아 하시는 무아가 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오시어 새 창조가 이루어지며⁵⁹⁾, 하느님의 선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방신부는 더 나아가 하느님과 합일하기 위하여 무어가 되는 삶을 ‘신비적 점성정신’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신비적 점성정신은 자신이 무아가 되고 하느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것,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안에 사신다.”(II 갈라 2,20)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수도정신으로 본 점성정신은 하느님의 능력으로 허무에서 빛이 나더니 만물이 생겨나고, 허무인 면형이 하느님이 되는 신비를 알아보고 하느님과 합일하기 위하여 무아가 되어 하느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카알 라너도 말한다. “나는 당신(하느님을 뜻함, 필자 주)의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⁶⁰⁾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느님께 철저히 봉헌된 점성정신을 엿볼 수 있다.

방신부는 하느님과의 합일을 위한 그의 영성 생활에서 체험된 열매들이 있다. 영적으로 “체험 후에 따르는 열매들, 즉 그 행위들이 좋은 것이며 가식이 없는 것이라면, 하느님과의 진정한 교류에서 비롯된 것임에 거의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거의’라는 대략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도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확인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열매로 인해 너희는 알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느님과의 친밀한 교류 후에 관대함이 생기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이 기쁨에서 벗어나 겸손해졌다면 우리의 기도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⁶¹⁾ 방신부는 영성적 체험의 기쁨을 가식 없이 표현하고 있다. 즉 “희열하는 이 내 마음의 고동이며, 너도 친히 느끼는 바요.....에덕으로 격동된 이맘은 이제사 꿈에서 깨노매라”⁶²⁾라는 영가(靈歌)에서 그의 영적 체험은 사랑으로 충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진정으로 수도정신으로 본 점성정신대로 살았던 수도자이었다.

59) 김옥희 편, 앞의 책, 492쪽.

60) K. Rahner, 앞의 책, 10쪽.

61) Andrea Gasparino, *Lord, Teach us How to Pray*, 최영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서울: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1999, 31쪽.

62) 방유룡, 앞의 책, 243쪽.

V. 결론

오늘날 각 분야에서 인간의 비인간화를 우려하고 있다. 인간은 자기가 상실되고 기계의 노예화되어 가는 현상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한 세속화의 세력과 물질문명의 파도 속에서 방향과 목표를 잃고 초고속의 시대에 휩쓸려 인간의 본 모습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식자(識者)들은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다. 비인간화의 주된 혼란은 영(靈)의 존재를 부정하는데서 시작되고 또한 영혼의 문제와 양심이 일상 생활과의 관계를 두개의 독립된 세계로 각각 규정하는데서 생긴다.

그리스도교 영성은 계시 진리인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그 대상과 기원과 목적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영성자체도 구체적으로 선교, 관상, 기도, 활동, 내적, 외적, 속죄, 전례적, 개인적 등이 아주 다양하게 표현된다. 또한 그 유형도 개인이나 단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특유한 영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적인 특유한 영성을 말할 수 있다.⁶³⁾

이에 방신부도 기도와 활동에서 그의 영성을 표현했고 발전시켰다. 무엇보다 수도회를 창설하여 그의 영성을 펼쳤나갔다. 방신부의 영성은 한국인의 정서와 자신의 고유한 용어로서 하느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나타냈다는 데에 그 특성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그의 영적인 진술은 매우 성서적이고 가톨릭의 전통에 입각하여 시적인 감수성으로 노래하는 시인이었고, 관상가이었고, 수도자이었고, 사제이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보면 많은 영성가들도 시와 노래로 하느님을 찬미했다.

방신부는 실제로 영혼의 존귀함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충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일에도 부정직할 것이다.”(루가 16,10)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점성정신의 터전을 영성생활의 시작으로 삼았던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완덕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출발부터 모든 정성과 열의를 가할 것을 제시했다. 방신부의 표현으로는 ‘알뜰하게’, ‘정확하고’, ‘빈틈없이’ 등으로 가르쳤고, 이를 일반적으로 본 점성정신, 신덕으로 본 점성정신, 수도정신으로 본 점성정신으로 그 차원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이는 곧 완전한 사람은 만사에 또는 조그마한 것에도 성의껏 노력하는 데 빈틈이 없어야 함을 주지시킨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점성정신으로 정확하고 빈틈없이 양심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철저히 수행한다면 이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것이며, 그 결과 서로 간에 믿음(신뢰)이 깊어지며 안심할 수 있는 평화와 행복이 올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한다. 중요

63) 최석우, 앞의 책, 139-140쪽.

한 것은 영혼의 존귀함을 재인식하기 위해서 종교교육의 과제가 막중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방신부의 영성 내용 중에서 점성정신을 주로 고찰하였지만 다음 기회에 하느님께 이르는 완덕의 과정을 게재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교리주교 위원회 편, 《가톨릭 교리서》,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4.
- 김규영, 〈친주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하겠소〉,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편, 《순교의 맥》, 서울: 도서출판 순교의 맥, 1996.
- 김옥희 편, 《영혼의 빛》, 서울: 태화 출판사, 1980.
- 류홍렬, 《한국 천주 교회사》,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1.
- 박희진, 〈미소하는 침묵〉,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편, 《순교의 맥》, 서울: 도서출판 순교의 맥, 1996.
- 방유룡, 《사랑이 사랑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형제애, 2003.
- 심상태, 《인간, 신학적 인간학 입문》, 서울: 서광사, 1989.
- 이숙자, 《무아 방유룡 신부님의 영적 가르침》, 서울: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1996.
- 전달수, 〈완덕〉, 〈영성〉, 한국 교회사 연구소 편, 《한국 가톨릭 대사전》 9권, 대구: 분도 출판사, 2002.
- 정제천,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과 무아 방신부님의 영성에 관한 비교〉,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면형무아》,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0.
- 진교훈, 〈무아 방신부의 정신세계〉, 한국순교복자 수녀회편, 《순교의 맥》, 서울: 도서출판 순교의 맥, 1996.
- 최석우, 〈한국 천주교회 영성의 어제〉, 한국 사목 연구소, 《전례 영성의 토착화》, 서울: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1992.
- Andrea Gasparino, Lord, teach us how to prayer, 최영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9.
- Anthony de Mello, Contact with God, 송형만, 《하느님과의 만남》, 왜관: 분도 출판사, 1998.
- Dal Sasso-Coggi, Compendio della somma teologia, 이재룡 외, 《신학대전 요약》,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3.
- Finbarr B. Connly, God and man in modern spirituality, 유철, 《현대영성에 나타난 하느님과 인간》, 서울: 가톨릭 출판사, 1995.
- Jordan Aumann, O. P., 이홍근, 《영성신학》, 왜관: 분도 출판사, 1987.
- Leon-Dugour, X., 광주 가톨릭 대학교, 〈영혼〉, 《성서 신학 사전》, 왜관: 분도 출판사, 1974.

- Rahner, K., 정대식, 《영성신학 논총》, 서울: 가톨릭 출판사, 1983.
Bultmann, Theologie des neuen testament, Tübingen, 1953.
Copleston, F., A history of philosophy II, Westminster Maryland: The Newman Press, 1992.
Gutbrod, W., Die paulinische anthropologie, Berlin: Stuttgart, 1934.
Maritain, J., Pour une philosophie de l'éducation, Paris: Fayard, 1969.
Rahner K., Do you believe in God?, New York: Newman, 1969.
Robinson, J. A. T., The body: a study in pauline theology, London: 1952.
Scheele, K. H., Teologia del nuovo testamento, Barcelona: Herder, 1975.

원고접수: 10월 8일

1차심사: 11월 18일

게재승인일: 12월 3일

연구자 소개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가톨릭대학교 교수

② 관심영역: 영성교육, 교육자 양성, J.Maritain의 교육철학

③ 주요논저: 《마리탱의 인간관과 휴머니즘》 《마리탱의 신앙심과 종교교육》, 《가톨릭의 가정 종교교육》

④ E-mail: choists@yahoo.co.kr

Spirituality of Reverend Bang Yoo-Ryong and Punctuality

Choi, Young-Hei
(Catholic University)

《Abstract》

The fundamental reason of Father Pang Yoo-Ryong existence is this: to do the will of God and that means to be as He wishes Father Pang to be. In concrete terms it means: to removed from Father Pang life everything which displease Him, and to model Father Pang life on absolute loyalty to the plans which God has for Father Pang.

There are moments of special enlightenment in our lives when God speaks which exceptional clarity. Almost everybody has experienced that at some time in there lives. At certain moments the voce of conscience is very sharp, and it says the exact opposite of what we would like to hear, but we cannot doubt that a divine presence, which counts every hear on the head, will intervene at precise moments in our lives and influence our decision.

A person possesses absolute dignity because he is in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realm of being, truth, goodness and with God, and it is only with these that he can arrives at his complete fulfillment.

Key words: Spirituality, Spirit, Punctuality, The basis of Korean spirituality, The virtue of perfection.